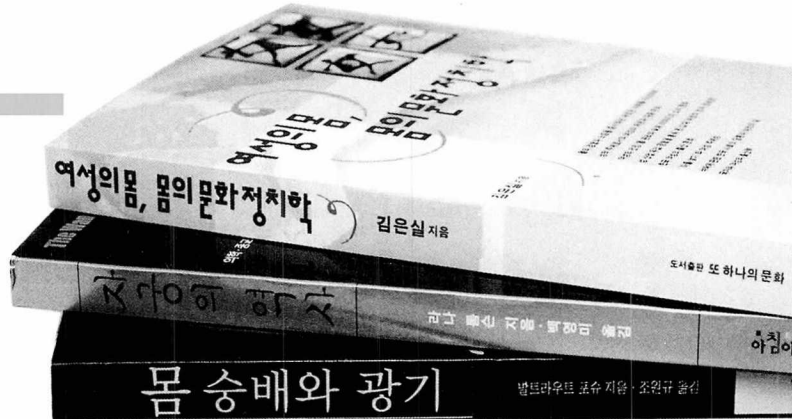


여성의 몸에 새겨진 억압 메커니즘 파헤쳐

《자궁의 역사》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몸 숭배와 광기》

오장미경 | 연세대 사회학과 강사

이 세권의 책은 모두 여성을 흥미롭고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이 책들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만들어나가고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자신의 몸이 실상은 이면에 도사린 권력자의 조종 속에서 주조됐다는 것이다. 이런 통찰은 몸에 대한 여성의 숭배가 여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출간된 세권의 책은 모두 여성의 몸을 다룬다. 라나 톰슨의 《자궁의 역사》와 발트라우트 포슈의 《몸 숭배와 광기》가 일관된 주제 아래 써내려간 통일성 있는 책이라면, 김은실의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은 8개의 다소 다른 논문들을 묶어 만든 책이다. 앞의 두 책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여성의 외모와 몸매, 자궁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있어 비교적 대중적이라면, 뒤의 책은 현재 실태에 초점을 맞춰 썬 전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자궁의 역사는 억압받은 여성 역사의 표식

우선 《자궁의 역사》는 여성 신체기관 가운데 가장 은밀한 기관인 자궁이 4천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간주돼왔는지, 자궁의 이해와 담론에 대한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자궁에 대한 탐구는 의료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이제껏 거의 시도되지 않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독자에게 매우 생소하면서도 새로운 여향을 하게 해준다. 자궁과 관련된 역사·사회적 지식이 별로 없는 독자들은 중요한 신체기관 이면서도 별로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자궁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억측과 해석, 편견들이 존재해온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자궁은 지금까지 남성지배 역사 속에서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언제나 신비의 영역이었고 그러면서도 위험스런, 모든 질병과 악을 품고 있는 기관이었다. 근대 이전까지 사람들은 여성의 신체를 남성의 불완전한 형태로 봤고, 월경과 우울증, 자궁 관련 질병 등은 모두 이런 불완전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생각해왔다. 이런 불완전함의 근원은 여성이 남성에게 없는 자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결혼하지 못한 여성들이나 성욕을 밝히는 여성들은 마녀로 낙인찍혔고 강제적으로 클리토리스를 절단당하는 수난을 겪어야 했다. 근대에 들어와서 자궁에 대한 과학적·의학적 접근이 시도되면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의 차이가 밝혀졌다.

하지만 자궁에 대한 미신들이 벗겨진 후에도 자궁과 여성에 대한 과거의 편견과 억측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남편이나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여자들은 '우울증' '미치광이' '남자 밝힘증' 환자로 취급돼 정신병원에 감금당했고, 출산을 못하거나 '자궁병'에 걸린 여성들은 비난받아야 했다. 20세기 이후 의료기술이 발달한 이후에도 남성 의사들은 의사의 편에 따른 출산방법과 제왕절개술,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했고, 현대에도 출산통제를 둘러싼 사회적 강제, 낙태반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
김은실 지음
또 하나의 문화/A5신/360면/13,000원
《자궁의 역사》
라나 톰슨 지음 | 백영미 옮김
아침이슬/A5신/232면/9000원
《몸 숭배와 광기》
발트라우트 포슈 지음 | 조원규 옮김
여성신문사/A5신/308면/10,000원

대론 등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하는 강력한 문화로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역사 속에서 여성의 자궁이 얼마나 비참하고 몰상식하게 다루졌는가를 확인하게 한다. 남성지배 사회 속에서 아무렇게나 방치되거나 취급돼온 말없는 여성의 신체인 자궁의 역사는 긴긴 시간 동안 억압당하고 차별받은 여성의 역사를 상징하는 표식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라나 톰슨이 제안하는 '생각실험'은 매우 시사적이다.

“아담이 이브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아담이 이브를 금지된 과실로 유혹한 탓에 인류가 낙원에서 쫓겨났고 이브의 몸은 이상적이 되 아담은 기형적이라고 말했다면... 아담의 원죄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임신시킬 때마다 전립선에서 날카로운 통증을 느끼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남자의 고통은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남자들이 끈적하고 찝찝한 정액을 방출하기 때문에 마술사로 몰린다면... (중략) 오직 여자들만 교육을 받고 남자들의 두

뇌활동은 생식기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생식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므로 교육을 받지 못한다... 남자들이 전립선을 다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비서나 가정부만 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면, 여자들에 대한 터무니없는 믿음의 문화사인 이 책에서 독자들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톰슨의 결론은 어떤 페미니즘적 웅변보다도 강력한 울림을 준다.

여성이 몸 숭배의 공모자로 참여하기도 해

여성의 몸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사례는 김은실의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에서도 보인다. 김은실은 성산업 유입 경험을 통해 본 십대 여성의 성, 한국 여성의 출산문화, 낙태 담론, 여성의 몸에 대한 국가의 통제정책에 대한 논문들을 통해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왔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남성 위주의 성문화 속에서 십대 여성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력의 중요성을 알 기회조차 차단당한 채 매매춘에 휩쓸리게 됐으며, 전문가 위주의 출산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남성 의사들의 편의대로 취급돼왔고, 남성 위주의 가족제도 속에서 아들을 낳는 도구로서 자리해왔다. 여성들은 또한 국가주도적 인구정책 속에서 가족계획의 대상이 됐으며, 낙태 반대론자들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다. 남성지배적 문화가 각인돼 있는 여성의 몸은 지배권력의 의지에 따라 구성돼왔고 이런 과정 속에서 여성들은 피지배자로서 존재해왔다는 것이다.

《자궁의 역사》가 말없는 신체기관인 자궁을 통해 비참하고 한 많은 피해자로서 여성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면, 《몸 숭배와 광기》는 여성이 단순히 피해자로서가 아니라 공모자로서 참여해온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다. 물론 이 책의 지은이인 오스트리아 저널리스트 발트라우트 포슈는 여성들이 몸에 대한 숭배와 광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하고 그런 분위기를

“20세기 후반 소비 자본주의의 확대로 인해 몸 가꾸기는 대중적으로 확산됐으며, 육체가 자본이며 미용산업은 현대 최대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됐다. 몸 가꾸기는 여성에게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자아 정체감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됐다.”

주도적으로 만들어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드러난 여성의 몸에 대한 숭배의 이면에는 분명히 여성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조종하는 지배자 남성 권력이 숨어 있다고 본다. 지배자 남성 권력은 여성을 모든 권력으로부터 배제하고 오직 여성의 몸을 통해서만 여성의 존재가치를 인정받도록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성해왔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이상적 몸 형태를 갖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몸에 대한 강박 부추기는 소비 자본주의

여성의 몸에 대한 이상적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이를테면 13~15세기부터 초기 르네상스시대까지는 가느다란 몸매가, 17~18세기에는 풍만한 몸집이, 19세기 초반까지는 자연적인 여성상이 추앙받았으며 20세기 이후 최근으로 올수록 날씬한 몸매가 이상형으로 여겨져왔다), 이것 역시 여성들 스스로의 자발적 의지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시대적 환경과 지배자 남성 권력의 기호 변화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20세기 후반 소비 자본주의의 확대로 인해 몸 가꾸기는 대중적으로 확산됐으며, 육체가 자본이며 미용산업은 현대 최대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됐다. 몸 가꾸기는 여성에게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척도이자 자아 정체감의 핵심으로 자리잡게 됐다. 오늘을 사는 여성에게 날씬한 몸, 젊음과 아름다운 외모에 대한 숭배는 이제 ‘광기’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시각은 김은실의 《여성의 몸, 몸의 문화 정치학》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난다. 김은실은 <소비문화 속에 강제되는 여성의 몸에 대한 관리와 육체 이미지> <몸의 경험과 느낌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회를 구상하며>와 같은 논문에서, 여성들에게 몸에 대한 강박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드러내고 있다. 김은실은 퍼트니스 클럽에서 면접한 여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항목은 ‘살찌지 않는 것’에 있다고 본다. 여성들의 운동은 결국 사회의 성별구조 속에서 여성적 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세권의 책은 모두 여성을 흥미롭고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있다. 이 세 책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자신의 몸이 실상은 이면에 도사린 권력자의 조종 속에서 주조됐다는 것이다. 남성지배 권력 속에서 여성의 몸은 억압돼왔고 대상화돼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소비 자본주의의 발전과 남성 지배적 자본에 의해서 비주체적으로 상품화돼왔다는 것이다. 이런 통찰은 몸에 대한 여성의 숭배가 여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는 비판이 확대되고 있는 요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에게 상당 부분의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이가 있다면, 라나 톰슨이 그러했듯이 ‘생각실험’을 해보기를 권한다. ■

오장미경씨는 한국여성연구소 학술국장이며, 연세대 사회학과에 출강한다. 저서 《페미니즘의 이론과 정치》, 편서 《오늘의 페미니즘, 세계여성운동》 등이 있다.